

군산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잇따라

내달 새만금배 태권도
금석배 축구대회 시작
새만금철인3종경기
인라인마라톤 등 개최

군산시는 25일 군산오픈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첫 대회는 '2023 군산오픈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대회'로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태권도 꿈나무인 초·중·고등부 학생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품새 1·2부, 겨루기 1·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23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가 전국 40개 팀이 참가 확정된 가운데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월명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외 보조경기장 등 5개 구장에서 개최된다.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금석배 축구대회는 1992년 처음 개최되어 한국 축구계에 큰 족적을 남긴 '해제골리' 선생의 정신과 우수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초·중·고등학생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군산에서 개최하는 첫 스포츠대회를 인문 안전 대회로 펼



군산시가 2023년 전국·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 경기.

수 있도록 주관단체는 물론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참가선수단의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KPGA 군산CC 오픈 프로

골프대회, 금석배전국중학생축구대회(초등, 고등), 전국청소년클라이밍대회 등 국제·전국대회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야구, 골프, 축구, 탁구)가 군산 일원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국제·전국 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종목발전으로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대회를 위해 군산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은 물론 군산의 맛과 멋을 알려 군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지속적인 스포츠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파”

전북현대 올 시즌B팀 신임 감독에 안대현 선임
보좌할 코치진에 정부선·조성환 등이 합류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2023시즌 B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안대현 감독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감독은 2016년 전북의 15세 이하(U-15)팀인 금산중 감독을 시작으로 전북에서 8년째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18세 이하(U-18)팀 영생고 감독으로 선임돼 그해 대한축구협회장배, 2020년 대통령배, 2021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제패하며 지도력을 인정 받았다.

안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으로는 영생고부터 합류한 정부선 GK코치와 지난해 은퇴한 조성환이 B팀 코치로 합류했다.

전북은 또 지난 시즌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에 데뷔한 강상운을 비롯해 9명의 신인 선수와 입



단 계약을 체결했다.

안 감독은 "U-18에 이어 B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선수들을 최선을 다해 육성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 B팀을 창단해 K4리그에서 세미프로팀들과 경쟁해왔다.

/뉴시스

김민재의 나폴리, 33년 만의 우승에 '청신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 라치오에 0-4 패배
선두 나폴리와 승점 12점 차

국가대표 최물 수비수 김민재(27)의 소속팀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가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33년 만의 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나폴리의 1위 질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쟁팀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 2위 AC밀란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의 2022~2023시즌 세리에A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4로 크게 졌다.

리그 6경기 무패(3승3무)를 이어오던 밀란은 이날 시즌 3패째를 기록하며 승점 38(11승5무3패)에 머물렀다.

이로써 선두인 나폴리(승점 50·16승2무1패)와의 승점 차는 무려 12점이 됐다.

한때 5점 차까지 좁혀졌던 양 팀의 격차는 최근 3경기에서 다시 벌어졌다. 나폴리가 3연승을 달린 사이 밀란이 2무1패로 주춤했다.

또 나폴리를 추격 중이던 유벤투스

도 최근 분식하게 의욕으로 승점 15점이 꺾이는 징계를 받아 10위까지 추락했다.

나폴리가 정상에 오르면 이번 시즌 이탈리아 무대에 입성한 김민재는 유럽 진출 후 첫 우승을 경험한다.

팀 내 주전 수비수로 뛰는 김민재는 정규리그 18경기에서 2골을 기록 중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을 포함하면 공식전 25경기(2골)를 소화하고 있다. /뉴시스

폴란드 축구 새 사령탑에 산투스

폴란드 축구협회는 2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투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끈 체스와프 미하에비치 감독과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차기 사령탑 물색이 이어졌고 한국을 12년 만에 16강으로 이끈 벤투 감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벤투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뉴시스

“GS전 나오지마”... 배구계, ‘친정팀 출전금지’ 논란 확산

GS칼텍스, 페퍼에 오지영 이적시키며 조건 달아
타 선수들은 친정팀 상대로 자유롭게 출전 중
한국배구연맹, 이번 사태로 관련 규정 고칠 듯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한 리베로 오지영(35)이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을 앞두고 오지영 결장 소식을 전하며 "트레이드 과정에서 오지영을 올 시즌 GS칼텍스와의 남은 경기에는 투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막 후 전패 중이던 페퍼는 지난해 말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면서 GS칼텍스로부터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이후 오지영은 출골 선발로 뛰었고 페퍼는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런 오지영이 구단 간 합의로 올 시즌 양 팀 간 대결에서 출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나자 배구계 일각에서는 선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정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제한되면 개인 기록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경기를 즐기는 관중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페퍼가 GS칼텍스를 꺾어 여자부 안방 최다 연패(13연패)를 끊었기에 망정이지 페퍼가 이번에도 졌다면 오지영 결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한층 더 끓어올라 수도 있었다.

아울러 오지영 출전을 막은 이번 GS칼텍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페퍼는 1승에 목마른 팀으로 기량 면에서 GS칼텍스에 몇 수 아래로 평가되는 팀이었다. 그런 팀을 상대로 핵심 오지영을 빼라고 요구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다.

GS칼텍스가 주전에서 밀려난 오지영을 페퍼로 보내면서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가 드러나자 배구팬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연맹 규정

범위 안에서 구단 간 합의를 했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지영을 보낸 대신 1년 후 신인 지명권이 아닌 2년 후 신인 지명권을 받는 식으로 페퍼를 배려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출전 금지 조항을 넣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GS칼텍스의 설명이다.

연맹이 이 같은 합의를 허용한 상황에서 GS칼텍스가 굳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빼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 구단들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맹과 구단들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